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첫 발...개발계획안 제출

공장부지에 '광주형 스마트시티' 도입·복합환승센터 설립 등
 지역사회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 "광주시와 긴밀 협조 계획"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29일 광주시 도시계획과에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제출하며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지난 1월 16일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금호타이어-미래에셋대우 간 업무제휴 협약 체결 이후, 공장 이전 프로젝트의 첫 단계다. 개발계획안은 자문사인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용역사인 딜로이트, DA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

사사무소, 지오시티가 참여했다. 계획안은 광주공장 부지에 '광주형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고, 환풍기 및 장복습지를 고려한 친환경 계획 수립, 복합환승센터 설립으로 교통환경 개선, 기존상권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개발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면 부지매각을 통해 이전부지 매입 및

최첨단·친환경·신설비를 갖춘 신공장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용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황호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은 "개발계획안 제출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신공장 부지 확보와 제반 사항에 대해 광주시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검토해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금호타이어가 수용하면 협상대상지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협상이 진행된다. **임형택 기자**

영암군, 황토멜론 수출 본격화

대만·홍콩 등 40톤 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



영암군은 영암농협 황토멜론 공선출하회원들과 함께 대만 수출 출하식을 지난 28일에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김석기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 오정현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장, 이재면 영암농협조합장, 농협k멜론공선회원, 수출업체 관계자, 생산농가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영암군은 그동안 농업을 고소득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멜론, 무

화과, 고구마 등 영암 농산물에 대한 특성화 사업에 힘을 쏟아 왔고, 특히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클로레다 농법 등 재배기술 도입과 공선회를 통한 공동선별 출하로 균일한 멜론을 유통해 왔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세계적인 품질의 멜론 재배에 성공하여 해외시장 수출로 영암 농산물의 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만, 홍콩 등에 수출 물

k멜론공선회 35농가가 참여해 약 3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7월 25일 대만수출을 시작으로 이년까지 총 12회 약 40톤의 물량을 수출대행업체인 멜론전국연합사업단 삼진글로벌을 통해 수출을 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월출산 맥반석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천혜의 토질인 친환경 황토 땅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내수 및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 물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동평 군수는 "요즘 농산물의 품작과 시장의 불안요인 작용으로 농산물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어 농업인의 이마에 잔름이 늘어나는 현실인데 영암농협에서 대만, 홍콩 등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멜론생산을 통해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수출 물류비, 하우스시설 개선사업 등 수출농가 육성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순천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민관학 공동협의체 출범

11명 구성... 타 지역보다 우수한 천연 자원 보유



순천시를 천연물 소재 및 제약 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민관학 공동협의체가 최근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순천시의 바이오산업 민관학 공동협의체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대 혁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난 7월 전남도 새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과제인 블루바이오와 관련해 타 지역보다 우수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선도해 가겠다는 취지에서 구립자원학과, 원예학과 등 우수 연구 인력을 보유한 순천대학교의 강점을 살려 순천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자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또한 동부생약농조조합인에서 지역내 1300여 약용작물 재배농가 등과 연계해 협력해 연구, 생산, 판매 활동을 병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순천대학교의 연구개발 기반을 바탕으로 천연물을 소재로 한 의약품의 생산과 제품화, 표준화로 신뢰성과 부가 가치를 높이고 기업 유치와 창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민관학 공동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순천 천연물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를 구축해 천연물 관련 연구기관, 기업, 천연물 활용 뷰티 업체들을 유치함으로써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